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인간 마음의 근본에 가설돼 있다

☞ 19면에서 계속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표현하려면 여러분 중 어떤 한 분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쉽겠군요. 처음에 어느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됐겠죠. 손주로도 되고요, 이름이.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고 사위도 되고 또는 형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름이 많으시죠. 만약에 그분이 부처님이시라면, 부처님이 앉아서 볼 때 각기 다른 그 이름에다가 주욱 놓고 빌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빌 때, 그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런 멍청이들, 저런…, 이름에다가 놓고 비는구나.' 이러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에다가 놓고 비는 것도 비는 거지만 말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이 어떠한 이름으로 되실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들로 되고, 나툰다는 뜻이 그런 겁니다. 화해서 돌아가는 거를 나툰다고 그러죠. 한 찰나 찰나 나투신다. 나툰다는 그 뜻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은 남편으로 있는데 애가 들어와서 "아버지!" 그러니까 금방 생각도 말도 행도 그냥 아버지로 하는 거예요. 아들로 됐을 때는 아들로서의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부처님 그 마음이란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나투시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셨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안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럼 언어가 왜 붙느냐? 사실은 어떤 언어도 붙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설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것도 그 뜻이고요.

그러니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한 뜻은 바로 그렇게 나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생생히 그것도 금방금방 나투면서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또 아버지가 됐다가 이러는데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니 부처님의 마음으로 지어 놓은 그 이름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름을 또 안 지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달마 대사도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 구렁이를 저기다 끌어다 놓고서 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집이 없어졌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집도 도둑놈의 집이 아니라, 그 도둑놈의 집이나 달마 대사가 잊어버렸다는 집도 결국 달마 대사죠.

지난번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가 나와서 신도들이 봤다고 "스님, 좀 가서 봅시다." 그래요. 그래 가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대목에 말입니다, 첫째 대목, 둘째 대목, 셋째 대목, 넷째 대목까지 이제 좀 말씀해 드리죠. 첫째 대목에 보면 현재 살던 의식이 죽고 나서도 살아 있는 줄 알아요. 즉 말하자면 관습 때문에, 관념의 습 때문에 죽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것이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주의 근본도 그렇지마는 이 법계의 소용돌이는 양쪽 구멍이 막힘이 없이 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바퀴가 돌아가고 물바퀴가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관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괴롭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워서 타 죽겠다, 물에 빠져 죽겠다, 높은 산이 있으면 '아이구, 저길 넘어갈 수 없겠구나.' 하는 이런 관습 때문이죠. 그래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또 그 구멍을 통과를 못 하고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적으로 나타남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한생각에 모든 중용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괜히 창살 없는 창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곤 노예처럼 이끌려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쓰러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쓰러지고, 중심을 세우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맷돌에 심봉이 꿰어지지 않았으니 맷돌이 이탈될 수밖에요. 물건을 넣어도 갈려져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지금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데 물질적으로만 끄달리면서 자기 중심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이 마음 자체, 하나의 근본에 의해서 그게 원자다 이런다면 거기서 입자가 나가고 나투면서 화해서 분자로서 화하죠. 천백억화신이다 이런다면 벌써,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을 십억, 아니 오십억이라도 되죠. 한 의식의 한 생각이 돌아가면 그렇게 많아지니까.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바퀴 속에 들고 나고 하는데도 그 관습 때문에 타 죽을까 봐 거길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영혼이 나와서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타 죽을까 봐 못 가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들어갑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생각이면 갈 거를 그렇게 빠져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의식이, 지금 세상에 살아 있는 의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렇듯이 아까 그 영화에서처럼 살아 있을 때의 산 의식으로 사람을 때리니 때려집니까? 붙잡으니 붙잡아집니까? 남이 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줄 알지 그냥 들어갈 줄은 모르는 거예요.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땅속도 깊이도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그 의식이 그렇게 관습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잡아도 잡히지 않죠, 때려도 때려지지 않죠, 뭐를 던져도 던져지지 않죠. 그러니 나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주겠습니까? 누굴 건져줄래도 어떻게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런 거, 고런 거 한 점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데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한생각이 빛보다 더 빠릅니다. 한생각이 전파를 통해서 전 우주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그게 뭔 소린지 도대체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영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가 없는 마음인 줄 알면 그냥 문도 통과하고 벽도 통과 통과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강도 내가 한생각이면 건너가지, 내 한생각이 무심인데 어찌 강이 있겠습니까? 강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건널 게 어디 있으며 '건넌다 안 건넌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천당도 지옥도 문지방 너머라고 안 그럽니까? 가깝고 멀고가 없다는 얘기죠, 한 생각 차이는.

그래서 그 한생각의 차이를 딴 영혼한테 알아 가지고서는 이제 그때는 마음을 모아서 하니까 되거든요. 그거는 알았는데 말입니다, 나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습니까, 예?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돌아다녔습니까? 그러면 자기 한생각이 열 개의 자기를 만들어서 한다면은 좋았을 것을, 나툼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나로 만들고 저것도 나로 만들고, 그랬으면 될 것을 나툼을 몰랐던 거죠. '만약 나툴 줄 알았더라면 자기 아내 건지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나툼은 나툼대로 못 했는데 또 그 윗단계, 나툴 줄은 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로 화할 줄을 몰라. 이걸로 화해야 이 무기가, 즉 말하자면 간장은 종지에다 담아야 되죠? 사발에 담는 사람 없죠? 그렇듯이 그 용도에 따라서 내가 화해야 되거든. 용도에 따라 그릇이 돼 주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그릇이 돼줄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열반계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응해 줄 수가 없다. 삼십이응신으로서 나투어서 응해 줄 수 없다 이 소리죠,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지 못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지구나 인간이 살아나가는 것도, 지구를 보기 이전에 우리 몸부터 볼 때 몸속에 들어 있는 그 많은 입자가 한생각으로 돌아간다면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도 그렇고 다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보현보살이면서 화신이라는 얘기죠. 생각하는 건 바로 법신이면서 문수고요.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도 않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 근본 심봉이라는 그 불성은 그냥 부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놓고 저기 놓고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작업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목을 볼 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계에는 욕심이 많아서 싸움이 생기고 서로 쫓기고 쫓으면서 지금 난리 아닌 난리를 치고 가는 겁니다. 몸으로 찔러 죽여서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고 물질과 물질이 붙는 싸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알력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싸우고 가지 않습니까? 먹고 먹히면서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탈피하면서 대처하면서 충당하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마음 도리, 이 도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인간 자체의 자기부터 완성해야만이 모든 이치를 알고 일체 제불의 골수를 안다 이 소리죠.

항상 되풀이하지마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자체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즉, 원자에서 한생각을 해서 수많은 입자가 나갈 때, 그 입자가 화해서 분자로 될 때, 우리 대기권의 모든 문제를 대처해 주고 들이고 내고 하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를 통해서 모든 걸 알게 되는데, 보십시오. 전파를 통해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네 컴퓨터가 바로 그 숙명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천안통 또는 타심통 이 자체가 모두를 한데 합쳐서 불바퀴라고 표현을 하죠. 불바퀴라면 지금 이 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불바퀴를 굴리죠? 그런 거와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입력을 해야 되고, 멀고 가까운 거리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한계가 없다는 얘깁니다. 저 쥐구멍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땅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허공이든 어디든 차이가 없고 거리가 없고 무한량이란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모든 일체를 다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화목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모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복이 오는 것이죠.**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1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NEW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